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尚의 참선요지 ⑦

結果開到老 對一箇話頭 還沒有弄明白 결과노도도 대일개화두 환물유명명백 不知什麼話頭 如何才算是話頭

옛사람이 이르기를 차리리 천년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루의 어긋남은 불가하다 하였다.

결국 시끄럽기만 할뿐 늙마에 이르러 하나의 화두를 대해도 희롱뿐일게 명백하니 무엇이 화두이고 어떻게 화두를 붙지 않지 못합니까.

有些參禪 看話頭的人 着魔發狂 유사참선 간화두적인 참마발광 吐血癲病 無明大火 人我見深 도혈이병 무명대화 인아견심 不是假禪善的例子嗎 不是假禪善的例子嗎

일생을 통틀어 연구와 명상에 집착하여 화두 아닌 화두에만 마음을 쓰니 참불하는 이 누구인가를 보라. 화두를 되풀이 비취보라는 식으로 본다. 참한대의 말 꼬리에서만 오가며 화두와 더불어 반대방향으로 어긋나게 된다.

잠깐 참선하여 화두를 본다든 사람이 마경에 집착해 미쳐버리고 피를 토하고 병을 앓으며 무명의 큰 불로 너·나의 소견만 깊어지니

那裏會悟 此本然的無爲大道呢 那里회오 차본연적무위대도나 如何到得 這一切不受的 王位上去呢 如何도득 저일체부수적 왕위상거니 金屑放在眼裏 眼只有瞎 금설방재안리 안자유할

“금가루 눈속에 넣으면 눈만 멀게할 뿐 어찌 대광명이 비춤을 보리오”

那裏會放 大光明呀 可憐阿可憐阿 那里회방 대광명이 가련아가련아 好我的兒女 離家學道 호호적아녀 리가학도 志願非凡 結果功勞一場 殊可悲憫 지원비범 결과공로일장 수가비민

이것이 혼하고 현저한 예가 아니겠는가. 그러기에 공부하는 사람은 또한 신심을 잘 조화할 필요가 있고 모름지기 마음을 평안케, 기를 고르게 하고 결집이 없게, 너와 나라는 아상 인상에 젖지 않게, 행위와와가 현묘한 기틀에 잘 결합되게 함해야 한다.

어찌 이런 속에서 본연의 무위대도를 깨닫는다 하였으며 어찌 저 일체만물에 함이 없이 풀이 아닌 최고의 지리에 나아가 이룬다 하리오. 금 가루를 눈 속에 넣으면 눈이 멀뿐인데 어찌 대광명이 비춤을 보리오. 가련하도다 가련하도다.

參禪這一法 本來無可分別 但做功夫來 初參有初參的難易 但做功夫來 初參有初參的難易 但做功夫來 初參有初參的難易 但做功夫來 初參有初參的難易

古人云 萬可千年不悟 不可一日錯路 古인云 萬可千年不悟 不可一日錯路 古인云 萬可千年不悟 不可一日錯路 古인云 萬可千年不悟 不可一日錯路

참선이라는 이 한 법은 본래 분별할 수 없으니 다만 공부를 지어가는데 초참은 초참대로의 쉽고 어려움이 있고 오래된 이는 그들대로의 난이가 있다. 몸과 마음이 순일하게 익지 않아서 나아가는 길이 많지 못하며 공부를 해도 향상되지 않는 것이다.

龍眼

“만법의 시작은 나로부터”

어름특집

우이 캐나다 통린록연사원주진



단의 편견을 버리고 큰 화합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여섯 개의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기관에서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생각하도록 강요합니다. 때론 여섯가지 감각으로 인해 수만가지 욕심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것을 꿰뚫어 보고 단호히 끊어버릴 수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실천한 것입니다. 항상되고 발전되는 의식을 가진 여러분은 자연히 진리의 행동을 행하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기만 하는 것과 그것을 행동화하여 살아 가는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는 지혜를 개발하여 생명의 본질에 한일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시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걸맞게 여러분 또한 자기 집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듯이 몹시 서두르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고통

중국에서 태어나 불교에 귀의했다. 그후 캐나다로 건너가 밴쿠버에 있는 통린록연 사원에서 주지를 맡고 있다. 이 법어는 작년 8월 통린록연에 불상을 새롭게 봉안하고, 행사에 참가한 사부대중에게 설한 내용이다.

“분별·편견·욕망등 허상 좇지 말고 본성을 찾자”

“진정한 이해” 대상과 벽 허물때 가능 합일은 일체법 열리는 ‘위대한 하나’

패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는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신감 부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충분한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물로부터 생겨난 ‘여건’ ‘문제’ 등과 쉽게 타협하고 변질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고 노예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 모든 존재물로부터 생겨난 참나적이고 그릇된 생각을 끊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눈 뜬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은 ‘눈 뜬 자’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으며, 내 생각으로, 그가 지금 여기에 앉아 내 법문을 듣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다르게 있다면, 스스로 자신감을 잃고 주변에 의존하며 매끄럽고 현란한 언변에 현혹되기 때문에 ‘진정한 이해’를 통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는, 욕망의 세계·형식의 세계에서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축성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해’란 바로 내가 우리이고 우리가 우주이며 따라서 나와 우주가 동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만법귀일’과도 같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만가지 법의 시작이 나에게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대각하셔서 대중에게 설하신 진리의 언어와 사고를 훨씬 뛰어넘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엇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상황을 내가 안다거나 그것에 대해

내 마음이 합일되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그 무엇과의 합일입니다. 이 우주를 감싸고 있는 진리 내 마음이 가서 닿는다는것, 그것이야말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발에 눈 맞추는 순간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 합일이야말로 위대한 하나됨이고 그로인해 일체의 법이 순순히 열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이해’는 대상과 대상사이의 벽을 허무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의견이 합일되는 것, 국가와 국가의 정의가 통합되는 것등이 모두 ‘진정한 이해’인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이해들이 모여서 큰 이해를 이루어나가고 그러한 사회를 우리는 회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를 위해 우리는 자신의 욕심과 집

과 욕망은 바로 이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또한 나이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불교에서 ‘본성은 자기 마음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저는 이것을 ‘순순한 빛깔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꼭 봐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순순한 빛깔기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또한 분별심이 없습니다. 오직 본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본성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힘 없는 법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지만 그 파도 자체는 바로 물의 인과 연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모든 것이 허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허상은 진실이 아닌것,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허상을 좇아 다니는 우리는 진실과 허실을 구별하는 지혜로운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의 눈은 허상에 혼동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모습을 볼 줄 알기때문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언제나 변치않는 본성을 보고자 노력할 때 여러분은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고 행하는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난치병 완치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한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100% 완치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스님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는 중생은 없는지요?
전국에 난치병을 완치한 자가 수천명에 달합니다.
온갖 방법 다 써도 실패 한 분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 한방 : (053)564-3355
대구 여래 한방

대승보살도의 현장 보현 불교 조각원
경주남산 (금오산 상선암에서) 보현불교 조각원에서 조국통일 세계평화 불국토 건설을 실현 하고져 대승 보살도의 수행으로 헤일 승려가 손수 불사의 현장이면 대한 민국 어디에든 가서 신속히 일하겠습니다
대표 상선암 주지 헤일 합장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기룡 관음상 목탱화
내부장엄 불사 : 가정불단, 수미단, 신중단, 영단, 단집 등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용두, 연설대, 전통사찰문 등 목공예품 일체
주소 : 경주시 경주 남산 상선암 사찰
공장 :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새마을 회관옆
0561-745-1921
0561-745-5888
보현 불교 조각원

현대불교신문서5
반야심경 해설서의 새로운 地平
현대인을 위한
반야의 가르침
송지호 글 / 신국판 / 420쪽 / 6,000원
친근하면서도 어려운 반야심경, 260자가 품고 있는 비의를 현대인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만나 보십시오. 한 소식 들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전해석을 축으로 하고 풍부한 예화(例話)와 적절한 인용을 곁들여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 엮은 반야심경 해설서.
불서전문출판
대흥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8(수성B/D 101호)
TEL. 738-6270, 735-7202 FAX. 733-1016
저자 송지호씨는 군산수산대학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는 금당사 법사로 포교활동에 전념하시면서 경전을 쉽게 해석하여 널리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계신다.
현대불교신문서
1. 운수서사설 마하반야마라밀경
2. 대장부론
3. 법화경 강설
4. 육묘법문
5. 반야의 가르침
6. 반야경(가제) <근간>